

# 201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국어 영역)

### 국어 영역

#### A형 정답

1	⑤	2	②	3	③	4	③	5	③
6	②	7	④	8	⑤	9	⑤	10	④
11	①	12	⑤	13	④	14	②	15	④
16	③	17	③	18	③	19	④	20	①
21	①	22	①	23	①	24	④	25	②
26	⑤	27	⑤	28	②	29	③	30	②
31	②	32	⑤	33	④	34	①	35	⑤
36	②	37	②	38	③	39	④	40	③
41	⑤	42	④	43	②	44	④	45	④

### 국어 영역

#### A형 해설

##### \*\* 화법 \*\*

##### 1. [출제의도] 대화의 특성 파악하기

㉠은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분석하여 대화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은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는 물리적 환경이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에서는 '그래? 정말 재미있어? 기대된다.'와 같은 대사를 통해서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에서 윤서는 체육대회의 의미에 대해 지형에게 말하고 있으며, 지형은 윤서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두 언어가 즉각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에서 윤서는 자신이 운동을 못해 들러리가 됐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를 전달해,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고 있다.

##### 2. [출제의도] 대화의 흐름 파악하기

윤서와 지형은 참여가 중시되는 체육대회를 지지하고 있으므로 모두가 참여하여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행사를 체육대회의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의를 알린 후 체육대회를 통해 우승보다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재능 발견 기회가 체육대회의 취지는 아니다. ③, ⑤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심신 단련이나 학업 능력 극대화를 이 대화에서 언급한 체육대회의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 3. [출제의도] 면접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평가하기

면접관은 여러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자질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원자는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여 답변한다. 하지만 지원자가 면접관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는 없으며, 면접을 통해 면접 참여자들의 가치관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①, ② 면접관의 두 번째 질문에서, ④ 지원자의 세 번째 답변에 확인할 수 있다.

##### 4. [출제의도] 발표 계획에 따른 내용 파악하기

사전 계획에서는 목 디스크 질환의 원인으로 의

부의 충격으로 인한 디스크의 손상을 들고 있었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① 이 발표는 '목 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이다. ②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 [출제의도] 발표 전략 파악하기

'추간관', '퇴행된 디스크' 등의 전문 용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 작문 \*\*

##### 6. [출제의도] 작문의 특성 파악하기

이 글을 쓴 목적은 학생회에서 하고 있는 '고운 말 사용하기' 캠페인에 학생들의 참여를 부탁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글쓰이는 욕설 사용의 실태, 문제점 등을 밝힌 후, 학생들이 욕설이 아닌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 설득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표현 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7.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 파악하기

(가)를 통해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 욕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1을 통해서 청소년이 욕설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습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욕설 사용의 주된 이유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성인보다 청소년은 욕설을 자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둘째 문단에서 언급한 청소년들이 욕설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⑤ (나)-2는 욕설을 들었을 경우 대부분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며, (다)는 욕설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친구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연결 지어 판단하면 욕설 대신 고운 말을 쓰는 것이 친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자료]에서 대형 마트는 묶음 포장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묶음 포장 판매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여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 합리적 소비를 위한 노력의 필요를 들 수 있다.

①, ② 해결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 ③ 자료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없다. ④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 9.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학생의 글'은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설득의 글쓰기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써여진다면'은 피동사 어간 '쓰이-'에 피동 표현 '-어지다'가 결합한 것으로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다. 이를 고친 '쓰여진다면'도 중복된 피동 표현이므로, '쓰인다면'으로 고쳐야 적절하다.

다.

##### \*\* 문법 \*\*

##### 11.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

'메우다'는 '뚫려 있거나 비어 있는 곳을 막거나 채우다'의 뜻이고 '고르다' ㉠의 의미는 '가지런하게 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둘은 유의어로 보기 어렵다.

② '방바닥이 고르지 않다'의 '고르다'는 '차이가 없이 한결 같다'의 의미이다. ④ '고르다' 1, 고르다 2'는 어미 '-아'와 결합하면 '골라'로 활용되는 불규칙 용언이다. ⑤ '줄을 고르다'의 '고르다'는 '고르다' ㉡의 의미를 지닌 동사이며, '치아가 고르다'의 '고르다'는 '고르다' ㉢의 의미에 해당하므로 형용사이다.

##### 12.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ㄱ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한 교체, ㄴ은 'ㅣ'나 'ㅡ'모음 계열 앞에서의 'ㄴ'첨가, ㄷ은 된소리되기에 의한 교체, ㄹ은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의 예이다. ⑤의 '집에 가'에서 '가'는 '가아'에서 'ㅏ'가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13. [출제의도] 안건문장의 종류 파악하기

'일찍 먹기'는 명사절로 안건문장으로 '일찍 먹기' 뒤에 붙은 '는'은 조사이다.

③ '-기'라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만든 명사절이다. ⑤ '자기가 옳다'는 간접 인용 조사 '고'가 쓰인 인용절이다.

##### 14. [출제의도] 문장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필요 있다'의 부정 표현은 '필요 있지 않다'가 아닌 '필요 없다'로 쓴다. '없다'는 '있다'의 어휘적 부정 표현이다.

##### 15. [출제의도] 심리적 태도 파악하기

㉠은 엄마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단정'이 아니라 '사실의 전달'에 해당한다.

##### \*\* 예술 \*\*

##### □ 출전: 최화삼, <동세(무브망) 표현>

##### 16.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이 글은 조각과 회화의 동세를 설명하고 있다. 동세의 개념과 동세 표현을 위한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조각과 회화 각각에서 동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 17.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의 (가)는 회화의 동세, (나)는 조각의 동세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조각은 3차원 작품이므로 특정 방향에서 작품의 동세를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가 전후좌우 모두에서 감상해야 동세를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 (가)는 대상의 형태와 윤곽선을 흐리게 하여 동세를 표현하는 회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발레리나의 팔다리 모습에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질 것 같은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세를 느낄 수 있다. 이는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검을 권 오른손과 짝 편 왼손, 굽힌 오른 다리와 길게 쭉 편 왼 다리'의 대비를 통해 동세를 느낄

수 있다. 이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과학 \*\***

□ 출전: <생명과학 I>

**18.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법 파악하기**

이 글은 인체에서 포도당의 농도를 정상 범위로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인슐린은 혈당량이 증가한 경우 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분비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인슐린의 기능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여 세포로 이동시켜 혈액에서의 포도당의 농도를 낮추는 것인데, 인슐린의 기능이 저하될 경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액에서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 인문 \*\***

□ 출전: 강신주, <철학 vs 철학>

**21. [출제의도] 핵심 내용 추론하기**

이 글에서 양주는 인간이 자신만을 위한다는 위아주의를 강조하였고 한비자는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간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존재라는 것에 양주와 한비자 모두 동의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양주는 국가 체제를 부정하고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이와 숙제는 인의라는 가치 규범에 얽매어 개인의 삶을 잃었기에 ①과 같은 양주의 평가는 타당하다. 3문단에서 한비자는 법치주의로 무장한 국가와 절대군주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③은 적절하지 않다. 백이와 숙제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기에 ④는 적절하지 않다.

**23. [출제의도] 숨겨진 이유 추리하기**

양주는 강력한 공권력을 독점한 국가에 의해 개인의 삶이 일종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인위적인 허식으로 생각한 것이다.

**24. [출제의도] 어휘의 적절성 파악하기**

④ ‘막론하고’는 ‘대상을 특성에 따라 가리거나 구별하여 논하지 않고’를 의미하므로 ‘가리지 않고’ 정도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사회 \*\***

□ 출전: 김철환, <파레토 최적>

**25.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파레토의 경제학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글로, 그 특성과 한계 및 의의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발전 과정을 설명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파레토 최적에 관한 개념을 1문단에서 밝히고 있으며, 그 특성은 글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파레토 이론의 한계를 3문단에서 밝히고

있으며, 그 의의는 한계와 관련지어 4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④ 파레토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은 2~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파레토 최적의 상황을 파레토 개선과 관련지어 밝히고 있다.

**26.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영회는 ⑥에서, 철수는 ④에서 만족도가 가장 크기에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④의 상황에서 철수는 최초와 동일하게 6개의 과일을 갖게 되나, 철수는 배에 비하여 사과에 대해 2배의 만족도를 얻기에 만족도는 2배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영회는 두 과일에서 얻는 만족도가 동일하기에 최초와 같은 숫자인 6개를 갖게 되면 그 만족도는 동일한 것이다. ⑥의 상황에서 철수는 전과 달리 3개의 과일을 갖게 되나, 2배의 만족도를 갖는 사과를 갖게 되기에 만족도는 결국 동일하다. 그러나 영회는 총 과일의 수가 9개로 늘어나기에 결국 만족도는 1.5배 증가한다. ③의 상황에서 철수는 최초와 달리 4개의 과일을 갖게 되나, 2배의 만족도를 갖는 사과를 갖게 되기에 만족도는 결국 증가한다. 또한 영회는 과일의 수가 8개로 늘어나기에 만족도는 증가한다.

**27.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더 이상은 좋아질 수 없는, 양측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황이 파레토 최적이며 이해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이러한 파레토 최적의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파레토 최적 이론은 손해가 없으면서 효용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설명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 기술 \*\***

□ 출전: ETRI 전파기술연구부, <원히 보이는 전파 기술>

**28. [출제의도] 설명 방법 파악하기**

이 글은 데이터 오류 검출 및 복구 방식을 자동 재전송 요구 방식과 순방향 오류 정정 방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술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9.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④는 송신 정보 데이터, ⑥는 송신 데이터, ③은 추가 데이터, ⑩는 데이터 전송, ⑨는 수신 정보 데이터, ①은 수신 데이터이다. 2문단을 통해 자동 재전송 요구 방식에서 추가 데이터 값은 ④에서 1의 개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한 개의 송신 정보 데이터마다 추가 데이터가 두 개씩 복사된 총 8개의 추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ㄱ). 또한 추가 데이터로 전송 오류의 위치를 판단하면 송신 정보 데이터의 세 번째 데이터 비트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ㄷ). 이를 바탕으로 하면 송신 정보 데이터가 ‘100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ㄴ). 마지막 문단에 순방향 오류 정정 방식은 수신기가 단독으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므로 송신기에 재전송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ㄹ).

**\*\* 현대시 \*\***

□ 출전: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첫 연의 3행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소’와 마지막 연의 3행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소’를 보면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A]는 ‘-았-, -던’ 등의 과거 시제를 활용하여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으며, ‘제비같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B]의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쥬’는 가정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C]에는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슬픔, 죽음, 상실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화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C]에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으며, 화자의 태도 또한 변화하지 않는다.

**33.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 글은 작가의 고뇌와 방황 같은 불안한 내면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사막’은 화자가 부른 노래가 건너간 공간으로, 푸른 하늘이 덮여 있기는 하지만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슬픈 공간이다. 또 ‘모래불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공간이다. 사막을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수필 \*\***

□ 출전: 김기림, <단념>

**3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의 글쓴이는 영웅의 삶과 속인의 삶을 대비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아주 단념해 버리는 것과 끝없이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영웅의 삶, 이와는 달리 약간은 욕망하고 약간은 단념하는 삶을 속인의 삶으로 대비시켜 진정한 삶의 자세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속인의 삶을 ‘굴짜기 밑바닥’을 걸어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욕망을 끝낸 후에 도달한 평온한 삶의 단계라 할 수 없다.

① ‘수많은 아르네’는 산 너머 생각을 잊어버리고 결혼을 하여 아버지가 되는, 욕망하다 단념해 버리는 속인이라 할 수 있다. ② ‘무(無)에 접(接)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주 단념해 버리는 수행승의 삶을 나타내고 필자는 이를 영웅의 길로 보고 있다. ③ ‘부단한 건설’ 역시 또 하나의 영웅의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고상한 섭생법’은 적당히 단념하고 적당히 욕망하는 속인의 삶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현대소설 \*\***

□ 출전: 김소진, <장석조네 사람들>

**36.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간동이가 윗집에서 흘린 반지를 주워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에서 비롯된 소동을 다루고 있다. 윗집 사람들은 진씨를 경찰에 신고하지만 소문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다. 윗집 사람들과 진씨가 대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지

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절충하는 것은 아니다.

37.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간둥이가 금반지를 삼켰을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자 윗집 사람들은 진씨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한다. 이로 인해 진씨가 경찰에게 연행되어 경위서를 작성하는 곤경에 처한다. 이러한 모든 일은 간둥이 뱃속에 금반지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인한 것이다.

38.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하는 경찰의 모습은 공권력이 지닌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 사이의 일상적 다툼이 극한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는다는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개인 간의 일상적 시비가 사회적으로 확대’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쌍용 아범은 폐병을 앓고 있는 진씨가 몸보신을 위해 사온 간둥이를 한강에 놓아주고 온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염려하는 것이지, 간둥이의 이용 가치에 대해 말하면서 진씨를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고전시가 \*\***

□ 출전: (가) 황진이, <어저 내 일이야>  
(나) 안민영, <임 이별 하울 적에>  
(다) 박문옥, <내게는 원수가 없어>

40.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와 (다)는 부채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는 임과 이별하는 순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그리움과 아쉬움은 모두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가)~(다) 모두 임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나)의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은 이별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시한 부분으로,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다. 그러나 자연물인 ‘꽃’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것은 아니다.

① ‘어저’에서 영탄을, ‘모르던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② ‘제 구태여’는 ‘가라마는’과 관련하여 임이 행동의 주체임을, ‘보내고’와 관련하여 시적 화자가 행동의 주체임을 중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임을 보내는 행위와 임을 그리워하는 심리를 대비시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다리를 저는 나귀가 빨리 가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를 통해 임과 함께 하는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42.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하기

(다)는 임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개와 닭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다)에서 개와 닭은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원망의 대상으로 나타나며, 화자는 이들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다)와 <보기>는 모두 화자의 독백적 어조를 통해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다)는 중장에서, <보기>는 1~3행에서 유사한 구조를 지닌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③ (다)와 달리 <보기>에서는 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에 따른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다)의 ‘강강’은 임을 오지 못하게 하여 사랑을 방해하는 소리이므로 화자는 개를 원망하지만 <보기>의 ‘뚜루를 낚륙’은 떠나간 임을 떠오르게 하는 소리이다.

**\*\* 고전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까치전>

4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술개미는 진실을 말하기가 난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두꺼비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44.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에서 까치는 ‘전혀 사리를 알지 못하니 너 같은 놈이 어디 있을꼬’라며 무례한 비둘기를 직접 꾸짖고 있다. [B]에서 할미새는 증언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노망이 난 척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비금들은 까치를 죽게 만든 범인인 비둘기를 묶어 관아로 데려가려 하는 인물로, 정의롭지 못한 세력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둘기가 탐관오리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금들의 행위가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① <보기>를 참고할 때, 암까치는 뇌물로 관리들을 매수한 비둘기 때문에 1차 송사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③ 할미새는 까치의 잔치에 참석하여 까치의 죽음을 목격하였음에도 노망난 척하며 증언을 회피하고 있다.